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윤석원* · 이재학**

An Analysis on Organic Farming Management

Yoon Suk - Won* · Lee Jae - Hak**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문제점 및 과제 |
| II. 유기농산물 생산규모 및 분포 | V. 맺는말 |
| III.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 참고문헌 |

I. 머리말

대부분의 산업국가가 그러하듯이, 산업일변도의 경제성장은 대기 및 수질오염, 토양의 산성화 등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자연의 자정능력 저하, 그리고 식품의 오염 등으로 인류의 존재와 그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추진된 화학비료 및 농약에 의존한 농업생산방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기농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유기농업은 생산 및 소비 등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여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몇 년 전부터 크게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기농업이 우리 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며, 생산기술 또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판로가 제대로 형성 및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많은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강사.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비 및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비를 분석하고 이를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비 및 소득수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생산자의 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생산특성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유기농업의 생산측면에서의 애로사항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기농산물 생산규모 및 분포

1. 유기농산물의 생산규모

1996년에 시행한 농촌진흥청 및 농협중앙회의 공동 조사에 의하면 1997년 현재 9,132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경지면적은 7,314ha에 달하고 있다. 이중 유기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수는 1,343농가이며, 경지면적은 1,080ha로 나타나 유기농업 농가수 및 경지면적이 친환경농업 대비 약 14.8%에 달하고 있다. 1989년의 친환경농업 경지면적이 약 2,000ha였으며, 유기농업 경지면적이 약 440ha였던 점을 감안할 때) 1989년이후 친환경농업 경지면적과 유기농업 경지면적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17.6%과 15%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6년대비 1997년의 친환경농가수 및 유기농업농가수의 증가율은 각각 35.9%와 14.6%를 보이고 있으나, 경지면적의 증가율은 각각 0.7%와 4.0%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유기농업의 정착 및 확산이 그리 쉽지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면적

(단위 : 농가, ha, %)

구 분	유기농업		무농약재배		저투입재배		계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1989	-	440	-	-	-	-	-	2,000
1996	1,172	1,125	1,093	1,131	4,465	5,008	6,720	7,265
1997	1,343	1,080	1,558	1,268	6,231	4,967	9,132	7,314
	(1,237)	(902)	(1,806)	(1,192)	(10,013)	(8,624)	(13,056)	(10,718)
증가율	'89~'97	-	15.0	-	-	-	-	17.6
	'96~'97	14.6	4.0	43.9	12.1	39.6	0.8	35.9
								0.7

자 료) 이규천 외,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86.

원자료) 1996년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공동조사.

주) ()는 농산물검사소(1998년) 자료임.

1) 1989년도의 순수유기농산물 및 저투입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약 2,000ha로 추계되며, 이중 약 22%가 순수 유기농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표본조사결과치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서종혁 외,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와 장기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2, p.42.

작물별 친환경농업의 농가수 및 생산면적을 살펴보면 채소가 3,019농가와 3,002.8ha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벼가 2,356농가와 2,654.3ha, 그리고 과수 837농가와 1,036.5ha 등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의 경우도 채소, 벼, 과일 순으로 나타나 벼와 채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유기농업 초기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몇가지의 유리성을 가지고 있었던 벼가 초기의 주요 생산품목이 되었으며, 점차 생산기술이 발달하면서 품목이 확대된 것에 있는 듯하다.

한편, 상추, 썩갓 등과 같은 품목은 일반농산물 중에서도 농약을 거의 주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기에 유기농산물로 생산하기가 비교적 쉬우나 심한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살포해야만 되는 과수류는 유기농산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작물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면적(1996년)

(단위 : 농가, ha)

구 분	유기농업		무농약 · 적정화학비료		적정농약사용 · 무화학비료		적정농약 · 화학비료사용		계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벼	368	398.3	520	517.8	103	104.0	1,365	1,634.2	2,356	2,654.3
채 소	568	521.2	440	446.0	284	281.6	1,727	1,754.0	3,019	3,002.8
과 수	83	96.0	52	89.4	138	152.5	554	698.6	837	1,036.5
기타 ¹⁾	153	109.7	61	77.9	32	38.8	262	344.6	508	571.0
계	1,172	1,125.2	1,083	1,131.1	557	576.9	3,908	4,431.4	6,720	7,264.6

자 료) 이규천 외, 「조진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86.

원자료) 1996년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공동조사.

주) 1) 기타는 특작, 버섯 등 특용작물임.

2. 유기농산물의 생산품목 및 지역분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산물표시사용 신고현황을 토대로 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품목을 살펴보면, 크게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 및 특용작물로 나누어지며,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는 아직 유기농산물표시사용 신고를 한 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의 생산품목은 약 100여품목으로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된 유기농산물표시사용 현황을 토대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지역별 분포 및 규모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즉,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총 570농가로 나타났다는데 생산지역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지역이 107농가, 강원지역이 87농가, 대전 및 충남지역이 140농가, 충북지역이 28농가, 광주 및 전남지역이 116농가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는 남양주에 33농가, 광명에 12농가, 하남에 10농가, 양평에 8농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생산품목은 상치, 썩갓, 케일 등 채소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군, 양평군 등은 전국 최대규모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강원지역은 원주, 횡성, 평창 등에 유기농가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주요품목은 배추, 감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및 충남지역은 홍성에 유기쌀 재배농가가 100호 이상분포하고 있으며, 충북은 괴산, 음성, 보은, 진천 등지에 유기고추 재배농가가, 그리고 전남지역은 보성, 강진, 순천 등지에 유기쌀 재배농가 등이 분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산물 표시사용신고를 한 농가수와 생산면적은 각각 570농가와 481.5ha로 농촌진흥청 및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유기농업 농가수 1,343호와 생산면적 1,080ha 대비 각각 42.4%와 4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경우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부터의 유기농산물품질인증은 소비촉진은 물론, 생산농가의 수익성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유기농산물 표시사용신고제도의 홍보를 통해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소비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로 가져와 소비확대는 물론 유기농산물의 생산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표 3〉 유기농산물표시사용 신고농가의 유기농산물 종류

구 분	품 목 명
식량작물	쌀, 멥쌀, 고두마, 감자, 옥수수, 밀, 기장, 수수, 녹두
채소류	상치, 양상치, 쪽갓, 케일, 신립초, 배추, 얼갈이 배추, 양배추(녹색꽃 양배추 포함), 무(알타리무, 열무 등), 들깻잎, 파(실파, 대파, 쪽파 등), 치커리, 토마토, 방울토마토, 당근, 호박, 호박순, 애호박, 가지, 부추, 근대, 아욱, 시금치, 겨자(겨자잎, 적겨자, 청겨자 등), 겨자채, 앤디브, 청경채, 비타민, 비트, 벨지움, 아스킨, 뉴그린, 그린사라다, 씬치, 교나, 피망, 미나리(양미나리, 향미나리, 돌미나리 등), 고추(진고추, 풋고추, 파리고추 등), 오이, 바우새, 사라다볼, 에이스킨, 오클립, 향나물, 참나물, 돌나물, 삼엽채, 샐러리(청샐러리, 적샐러리, 삼샐러리 등), 생취나물, 두릅(딸두릅 등), 곰취, 달래, 브로콜리, 고구마줄거리, 양파, 냉이, 우엉, 겨울초, 삼척초, 선학초, 컴프리, 어성초, 다채, 치코, 금강초, 트래비스, 썸머, 파세리, 하루나, 용설채, 토스카나, 구루모, 라디초, 이탈리아나, 로메인, 슈가로프, 질경이, 샐러드볼, 로케트, 레디쉬, 적경채, 경두채, 샐러드채, 팔라로사, 적방울, 콜라비, 코스타, 적치마, 흑임자, 롤로, 스카롤라, 모시대, 크호라비, 워트로드, 로메인레스터, 보스턴레스터, 라니리오, 라이랍, 롤라로사
과실류 및 특용작물	생강, 깨(참깨, 들깨), 대두, 머루, 딸기, 영지, 더덕, 포도, 마, 메론, 콩(검정콩, 완두콩, 백태, 풋콩, 콩나물콩 등), 땅콩, 허브, 민들레, 참외, 수박, 마늘, 녹차, 단감, 유자, 강황, 당귀, 알로에, 감귤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4〉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지역분포 및 경작면적

지역	농가수	경작면적 (ha)	지역	농가수	경작면적 (ha)		
서울	3	6.1	총 북	충주	5	6.0	
부천	2	1.2		단양	1	1.0	
양주	3	4.7		음성	7	24.7	
하남	10	6.9		보은	3	1.6	
광주	5	3.8		영동	1	0.2	
이천	7	11.0		괴산	8	2.0	
여주	4	8.5		진천	3	0.8	
남양주	33	27.3		계	28	36.3	
경기	구리	2	1.9	광주	1	1.1	
	파주	2	3.8	전 남	화순	22	8.0
	고양시	7	3.9		무안	3	1.3
	양평	8	5.5		장성	9	7.6
	포천	1	0.1		담양	1	0.8
	화성	3	0.9		보성	29	12.4
	과천	5	0.6		고흥	1	0.2
	광명	12	10.8		강진	12	6.0
계	104	90.8	해남		15	21.4	
강원	화천	4	2.1		진도	1	3.8
	원주	41	13.9		곡성	1	0.1
	횡성	18	12.3		구례	1	0.1
	삼척	2	1.5		순천	17	12.3
	양구	1	0.5		영광	1	2.3
	평창	16	25.6		완도	2	0.8
	정선	1	0.2	계	115	77.0	
	영월	1	0.7	포항	4	11.6	
	철원	1	0.2	경 북	안동	2	2.6
	동해	1	0.1		경주	2	1.5
태백	1	0.4	예천		1	0.8	
계	87	57.5	청송		1	0.1	
대전	진	3	2.2		울진	5	5.6
	아산	12	7.7		성주	7	9.9
충남	논산	2	1.3	상주	9	8.3	
	부여	1	2.3	계	31	40.4	
	보령	4	1.5	제주	6	7.9	
	서천	2	1.6	합계	570	481.5	
	공주	2	1.0				
	홍성	100	77.7				
	천안	7	4.2				
	금산	5	1.4				
	태안	1	0.3				
	당진	1	0.5				
계	137	99.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산물표시사용 신고현황」, 1998.

Ⅲ.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1. 유기농산물 품목별, 지역별 조사농가 현황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지역별, 품목별 생산면적 및 생산비 등 경영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158농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된 「유기농산물표시사용」 신고현황을 토대로 하여 조사품목 및 지역 그리고 농가를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유기생산농가가 비교적 많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품목별, 지역별 조사농가 분포는 쌀 25농가, 상추 22농가, 배추 22농가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6농가, 강원지역이 37농가, 충청지역이 30농가 등 총158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기농산물 생산자의 평균연령은 48.5세이며, 이를 유기농산물 품목별로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고추생산자가 약 53.1세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포도, 쌀 배, 배추, 상추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 농업종사자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교적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한 경력은 약 25년이며, 일반농업을 포기하고 유기농업에 종사한 경력은 약 5.5년에 이르고 있다.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평균 약 2,166평으로 중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쌀이 평균 4,044.1평으로 재배면적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배 3,950평, 포도 2,797.3평, 배추 1,646.1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유기농업 생산경력 및 재배면적

(단위 : 세, 년, 평)

품 목 명	연 령	영농기간	유기농업생산경력	재배면적
쌀	50.2	27.9	4.6	4,044.1
상 추	45.6	19.8	8.2	1,406.8
배 추	47.9	25.8	5.7	1,646.1
포 도	51.6	22.9	6.6	2,797.3
배	49.4	21.9	4.8	3,950.0
고 추	53.1	30.3	3.9	569.6
감 자	48.8	26.3	4.5	750.0
평 균	49.5	25.0	5.5	2,166.3

2. 유기농산물 품목별 생산비 분석

1) 유기농 쌀의 생산비 분석

유기농업과 일반농업과의 조수입을 비교한 결과 유기농업이 10a당 843.4천원으로 일반농업의 10a당 904.1천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해 42.4%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단수가 34.4% 낮아 결과적으로 조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를 살펴보면 유기농업의 경우 무기질비료비는 없으나 유기질비료비가 일반농업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농약비는 없으나 생물농약비가 다소 발생하고 있고, 고용 및 자가노동비 등에서도 일반농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해 소득면에서 약 53.5%, 순소득면에서 79.1%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농업의 생산비를 '98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에는 타인자본용역비와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해 소득면에서 27.5%, 순소득면에서 3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순소득면에서만 고려해 볼 경우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농약비료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감소와 축산분뇨 등의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총편익을 고려해 본다면 유기농업의 효과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2) 유기농 상추의 생산비 분석

유기농업의 조수입이 10a당 3,607.5천원으로 일반농업 2,773.7천원에 비해 약 23.1% 높다. 이는 단수에서는 2,445.8kg으로 일반농업 3,302kg에 비해 25.9% 낮으나 가격에서는 kg당 635원(43.1%) 높기 때문이다.

생산비의 구조에서는 쌀의 경우와 비슷하게 무기질비료비, 유기질비료비, 농약비, 자가노동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인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유기농업의 소득 및 순소득이 일반농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교할 경우 소득 및 순소득 모두 일반농업에 비해 유기농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기농 배추의 생산비 분석

배추의 경우 다른 품목과는 상이하게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해 부가가치, 소득, 순소득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유기농업의 단수가 6,015.7kg으로 일반농업의 7,939kg에 비해 24.2%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격면에서 유기농업이 215원으로 일반농업 157원에 비해 27% 높아 유기농업의 조수입이 1,290.7천원으로 일반농업의 조수입 1,246.4천원을 다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경영비 및 생산비의 총액에서도 일반농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을 제외

할 경우는 유기농업의 소득 및 순소득이 일반농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유기농산물의 품목별(쌀, 상추, 배추) 생산비

(단위 : 천원/10a)

구 분		쌀		상 추		배 추		
		유기농업	일반농업 ¹⁾	유기농업	일반농업 ¹⁾	유기농업	일반농업 ¹⁾	
조수입(천원)(A)		843.4	904.1	3,607.5	2,773.7	1,290.7	1,246.4	
단수(kg)		339.4	518	2445.8	3,302	6,015.7	7,939	
가격(원)		2,485	1,745	1,475	840	215	157	
생 산 비	(B)	종묘비	17.9	8.0	25.3	21.3	15.2	33.7
		물						
		무기질 비료비	-	11.9	-	31.6	-	31.1
		유기질 비료비	89.4	5.0	357.3	101.8	69.6	47.9
		농약비	7.6 ²⁾	19.7	5.7 ²⁾	14.7	7.8 ²⁾	19.9
		광열·재료·수선비 ³⁾	7.6	7.6	452.7	452.7	36.1	36.1
		감가상각비 등	116.8	69.2	367.5	392.8	56.5	60.0
	계	239.3	121.4	1,208.5	1,006.7	185.2	228.7	
	(C)	고용노동비	30.6	14.8	253.2	339.0	138.9	91.5
	토지임차료	66.1	91.8	52.2	18.8	49.5	22.9	
	(D)	타인자본용역비	80.4	-	710.9	-	75.0	-
	계	416.4	228.0	2,224.8	1,364.5	448.6	343.1	
	자가노동비	127.5	100.2	1,358.0	1,218.9	168.9	409.7	
	토지용역비	125.8	-	468.8	-	125.9	-	
자기자본용역비	48.3	-	295.6	-	44.4	-		
계	718.0	328.2	4,347.2	2,583.4	787.8	752.8		
부가가치(A-B)		604.1	806.5	2,398.9	1,767.0	1,105.5	1,017.7	
소 득(A-C)		427.0 (507.4)	699.7	1,382.7 (2,093.6)	1,409.2	842.1 (917.1)	903.3	
순 소 득(A-D)		125.4 (379.9)	599.5	△739.7 (735.6)	190.3	502.9 (748.2)	493.6	
소 득 률(%)		50.6 (60.2)	75.4	38.3 (58.0)	50.8	65.2 (71.1)	72.5	

주) 1) 유기농업은 본 연구 조사결과이며, 일반농업은 '98 농축산물 표준소득의 노지포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유기농업의 농약비는 생물농약비를 의미함.
 3) 광열, 재료, 수선비 등은 '98 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 계산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4) 유기농업의 ()는 타인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하였을 경우임.

4) 유기농 포도의 생산비 분석

유기농업의 포도생산량은 1,683.9kg으로 일반농업의 포도생산량 1,992kg에 비해 308.1kg (15.5%)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면에서 일반농업의 1,992원에 비해 17.8%높은 2,232원으

로 나타나 유기농업의 조수입은 10a당 3,758.5천원으로 일반농업 3,655.3천원에 비해 103.2천원(2.7%) 높게 나타났다.

생산비를 살펴보면 무기질 비료비, 유기질 비료비, 농약비, 자가노동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기농업의 자가노동비가 일반농업에 비해 52.1%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업을 실행해 오는 과정에서 지력의 향상이 있어 노동비가 적게 투입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유기농업의 소득률은 67.7%로 일반농업의 78.3%에 비해 10.6%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 및 순소득이 일반농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타인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유기농업의 소득률과 소득이 각각 71.0%와 2,667.8천원으로 일반농업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특히, 순소득은 2,115.2천원으로 일반농업의 1,707.5천원에 비해 1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유기농 배의 생산비 분석

배의 경우 유기농업의 조수입은 일반농업 4,336.9천원에 비해 6.8%(293.8천원) 낮은 10a당 4,043.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에서는 2,302원으로 일반농업의 1,721원으로 kg당 581원(25.2%) 높은 반면에 단수에서 1,756.3kg으로 일반농업의 2,520kg에 비해 763.7kg(30.3%) 낮기 때문이다.

생산비 구조에서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무기질 비료비, 유기질 비료비, 농약비, 자가노동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약비의 비중이 타품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의 경우 아직 유기농가의 수가 적고 저투입 농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기농업의 소득과 순소득은 일반농업의 3,443.7천원과 1,562.2천원 보다 각각 21%와 22.6% 낮은 2,719.8천원과 1,562.2천원으로 나타났다. 타인자본용역비와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를 제외하였을 경우는 소득이 일반농업에 비해 20.2% 낮은 2,749.3천원으로, 순소득은 일반농업에 비해 5.1% 높은 2,127.2천원으로 나타났다.

6) 유기농 고추의 생산비 분석

유기농업의 고추 조수입은 1,302천원으로 일반농업 1,272.5천원에 비해 약 2.3%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수에서는 232.8kg으로 일반농업의 259kg에 비해 26.2kg(10.1%) 낮게 나타났으나 가격면에서 일반농업의 4,913원보다 약 12.2% 높은 5,595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생산비 측면에서는 무기질비료비, 유기질비료비, 농약비, 고용 및 자가노동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기질비료비가 일반농업에 비해 11.6배 높은 237.4천원으로, 고용노동비가 일반농업에 비해 2.5배 높은 182.4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추 유기농의 토양관리를 위하여 많은 유기질 비료가 소비되었으며, 자가노동에 의한 토양관리작업의 한계로 고용노동력이 많이 투입된 결과로 보여진다.

소득은 유기농업이 각각 501.1천원으로 일반농업에 비해 약 2배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순소득은 -830.5천원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타 품목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인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하였을 경우는 소득과 순소득이 각각 629.9천원과 117.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 유기농산물의 품목별(포도, 배, 고추) 생산비

(단위 : 천원/10a)

구 분		포도		배		고추		
		유기농업	일반농업 ¹⁾	유기농업	일반농업 ¹⁾	유기농업	일반농업 ¹⁾	
조수입(천원)(A)		3,758.5	3,655.3	4,043.1	4,336.9	1,302	1,272.5	
단수(kg)		1,683.9	1,992.0	1,756.3	2,520.0	232.7	259.0	
가격(원)		2,232.0	1,835.0	2,302.0	1,721.0	5,595.0	4,913.0	
생 산 비	경 영 비 (B)	조성비	82.6	70.6	59.1	42.4	63.8	43.7
		무기질 비료비	-	41.2	-	60.8	-	38.3
		유기질 비료비	116.2	75.4	209.8	149.0	237.4	20.4
		농약비	4.9 ²⁾	60.4	90.4 ²⁾	120.0	18.6 ²⁾	32.8
		광열·재료·수선비 ³⁾	252.2	252.2	317.9	317.9	61.6	61.6
		감가상각비 등	90.8	116.0	119.3	204.1	49.1	38.4
	(C)	계	546.7	615.7	796.5	894.2	430.5	235.7
		고용노동비	161.1	169.9	283.1	376.9	182.4	73.9
		토지임차료	382.9	8.1	214.2	18.4	59.1	43.5
	(D)	타인자본용역비	124.6	-	29.5	-	128.9	-
		계	1,215.3	793.7	1,323.3	1,289.7	800.9	356.5
		자가노동비	552.6	1,154.1	622.1	1,028.8	512.5	613.8
		토지용역비	693.5	-	483.5	-	682.3	-
		자기자본용역비	167.9	-	52.0	-	136.8	-
계		2,629.3	1,947.8	2,480.9	2,318.5	2,132.5	970.3	
부가가치(A-B)		3,211.8	3,039.7	3,246.6	3,048.3	871.5	1,050.3	
소 득(A-C)		2,543.2 (2,667.8)	2,861.6	2,719.8 (2,749.3)	3,443.7	501.1 (629.9)	929.5	
순 소 득(A-D)		1,129.2 (2,115.2)	1,707.5	1,562.2 (2,127.2)	2,018.3	△830.5 (117.5)	302.2	
소 득 률(%)		67.7 (71.0)	78.3	67.3 (68.0)	70.3	38.5 (48.4)	72.3	

주) 1) 유기농업은 본 연구 조사결과이며, 일반농업은 '98 농축산물 표준소득 의 노지포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유기농업의 농약비는 생물농약비를 의미함.
 3) 광열, 재료, 수선비 등은 '98 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 계산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4) 유기농업의 ()는 타인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하였을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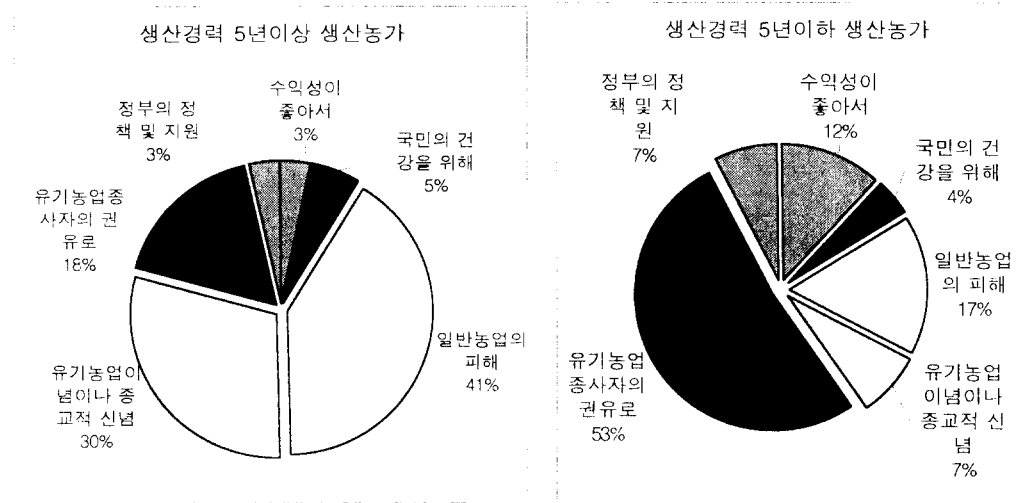
3.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특성

1) 유기농산물 생산동기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유기농가의 경우 그 생산동기는 과거 일반농법으로 생산할 당시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투입하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그들 스스로가 불신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유기농업이념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기농업종사자의 권유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기농산물 생산경력이 5년 이내인 농가의 경우는 유기농업종사자의 권유로가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농법의 피해로, 수익성이 좋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기농업의 생산동기는 「농업생산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농약 등 각종 화학비료 대신에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농업철학을 가진 농민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주변 농가에 확산되면서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수가 증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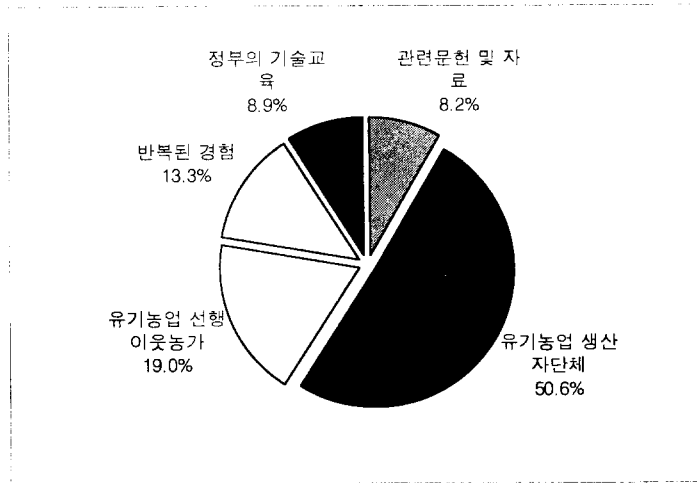
2)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습득방법 및 기술수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배하기 쉬운 품목과 어려운 품목이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으로 생산할 경우에 비해 병충해 발생정도도 크며, 이에 따른 수확량의 감소도 크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기술 및 관련지식의 습득방법을 살펴보

면, 일반적으로 유기농업 종사자들의 학력수준이 대체적으로 낮고 관련서적 및 자료를 구하여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관련서적 등을 통하여 습득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 및 지식 습득방법은 정농회, 흙산림 연구회, 한살림 공동체 등 유기농업생산자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기농업을 먼저 시작한 이웃농가로부터 습득하는 경우가 19%, 각자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여 터득하는 경우가 13.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기술교육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는 8.9%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및 관련지식 습득방법

3) 유기농업실시에 따른 생산량 감소율

유기농업 종사시 일반농법에 의한 경우에 비해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유기농업 생산경력이 5년 이상되는 농가의 경우 시행 1년차에는 약 31.4%, 2년차에는 29.7%, 3년차에는 24.8% 등으로 나타나 유기농업의 시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자 자체의 경험에 의해 생산량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토양 유기물의 집적으로 인해 작물들이 튼튼하게 생육하며, 병충해 발생빈도가 감소하는 것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시행 5년차가 된 후에도 일반농업 종사시 대비 약 84%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일정수준이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낮은 소득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종전생산량 도달시기를 살펴보면 평균 4.9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기간이 가장 긴 품목은 포도로 약 6.2년으로 나타났으며, 그 기간이 가장 짧은 품목은 감자로 4.3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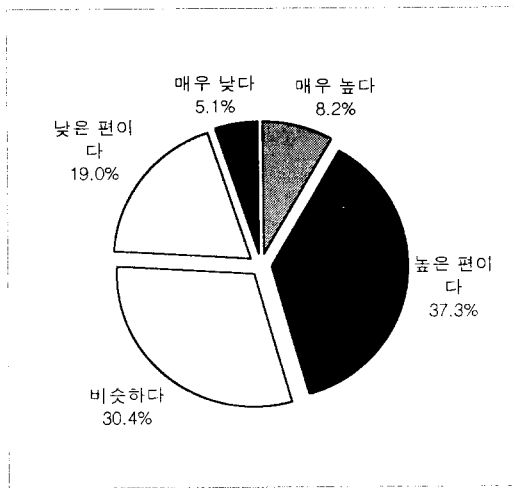
〈표 7〉 유기농업실시에 따른 생산량 감소율 및 종전생산량 도달시기

구 분	연도별 생산량 감소율(%)					종전생산량 도달시기(년)
	1992	1993	1994	1995	1996	
쌀	38.9	36.8	27.3	24.3	17.2	5.1
상 추	32.1	30.0	23.75	21.5	17.5	4.4
배 추	30.0	30.0	28.5	22.7	19.3	5.0
포 도	40.4	38.2	29.3	26.6	22.3	6.2
배	24.6	21.6	19.7	15.3	10.4	4.4
고 추	27.1	26.8	25.3	17.7	11.2	4.7
감 자	26.6	24.8	21.6	18.3	15.9	4.3
평 균	31.4	29.7	24.8	20.8	16.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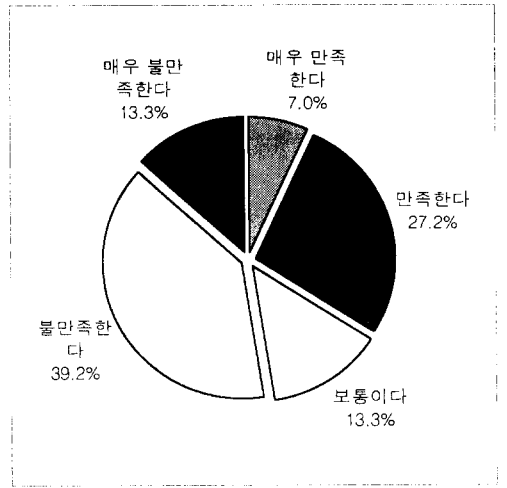
4) 수익성 및 판매가격수준

일반농법에 비해 유기농업의 수익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가 8.2%, 높은 편이다가 37.3%, 비슷하다가 30.4%, 낮은 편이다가 19% 등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유기농업의 수익성이 일반농법에 비해 더 나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소비자들도 화학비료와 농약 등 각종 약물에 오염된 농산물 그리고 그 가공식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작용한 결과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기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중 생산자 단체 등과 연계되어 그 판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농가의 경우는 수익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판로가 안정되지 않은 농가의 경우는 아직 그 수익성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유기농업의 확대와 발전 등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된 판로의 개척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3〉 유기농업의 수익성



〈그림 4〉 유기농산물 판매가격수준

유기농산물의 판매가격수준에 대해서는 매우만족한다 7.0%, 만족한다. 27.2%, 보통이다 13.3%, 불만족하다 39.2%, 매우 불만족하다 13.3% 등으로 나타나 판매가격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기농업의 수익성은 대체적으로 높으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는 아직 일정기간 생산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점과 제초작업과 병충해방제, 퇴비제조 등 일반농법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들며, 이와 더불어 노임, 퇴비비용 등 생산비가 많이 드는 점등을 감안할 때 현 유기농산물 판매가격수준이 이를 보전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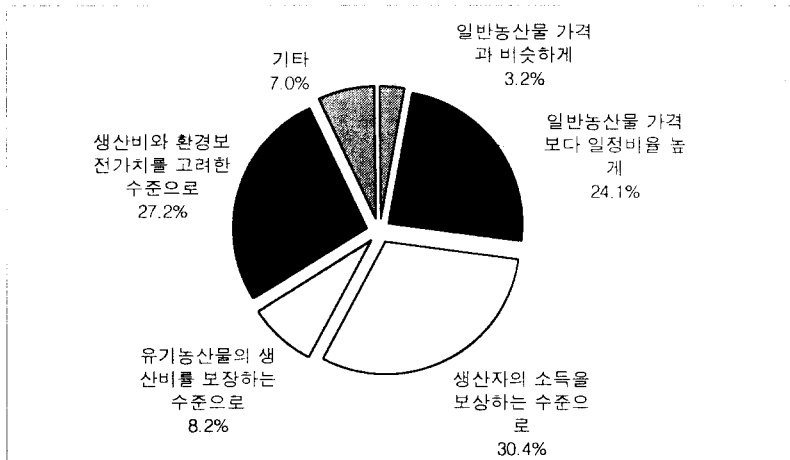
5) 바람직한 유기농산물의 가격결정기준

이상의 사항을 감안할 때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은 바람직한 유기농산물의 가격결정기준을 유기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거나 생산비와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선호도와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저변화되지 않았기에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은 너무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의 일정 소득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중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간 품질차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자료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유기농산물의 가격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유기농산물의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품질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꼭 가격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일정비율 높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비중도 24.1%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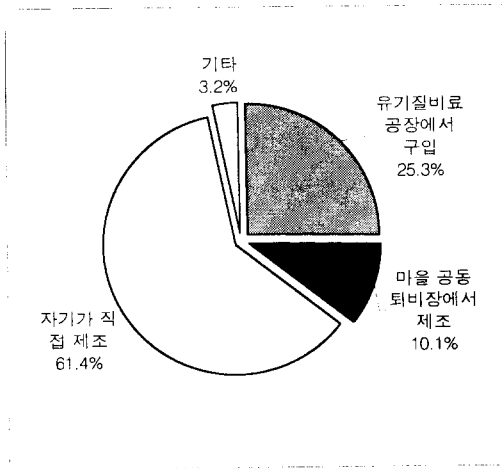


〈그림 5〉 바람직한 유기농산물의 가격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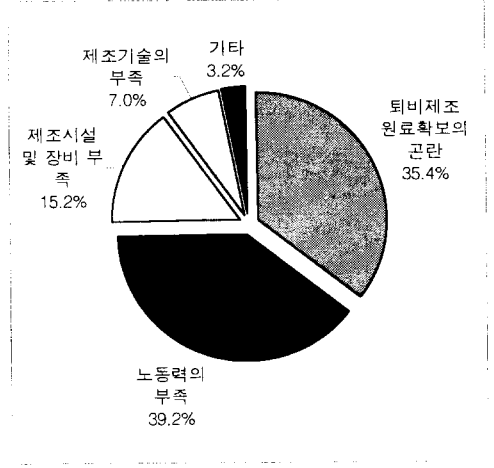
6) 유기질비료의 조달방법 및 퇴비제조상 애로점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퇴비조달은 자기가 직접 제조한다가 61.4%,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구입한다가 25.3%, 마을 공동퇴비장에서 제조한다가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가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퇴비제조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비용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을 공동 퇴비장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유기농업 생산조직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공동 퇴비장을 이용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퇴비제조시 어려운 점은 노동력이 부족하다가 39.2%, 톱밥, 계분 등 원료확보가 곤란하다가 35.4%, 제조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하다가 15.2%, 제조기술이 부족하다가 7.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퇴비제조기술상의 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으나 퇴비제조에 드는 노동력 및 노임의 절감과 퇴비생산의 기계화 및 대량화를 통하여 값싼 퇴비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함을 의미함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유기질비료의 조달방법



〈그림 7〉 퇴비제조시 어려운점

IV.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문제점 및 과제

1.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문제점

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생산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노동력과 비용을 많이 투입하고도 많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안정된 판로의 부족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타 일반농업 농가의 유기농업으로의 유도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도 유기농산물 생산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농업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판로가 부족하다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그림 10〉에서와 같이 성공적인 유기농업경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유통체계의 확보를 각각 49.4% 15.2%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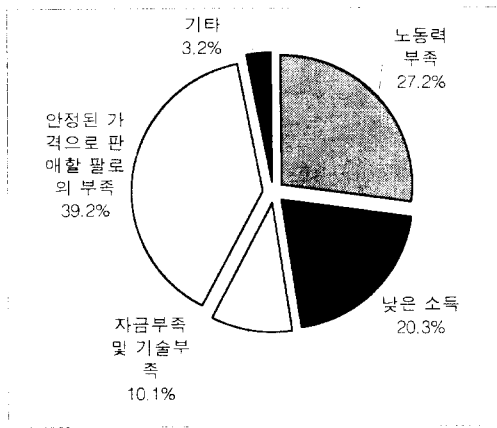
유기농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기에는 병충해 방제, 퇴비제조 등에 드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이는 서종혁 등이 연구한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체와 장기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유기농업경영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의 설문에 기계화를 통한 저렴한 퇴비공급이 45.5%, 적절한 가격수준 유지가 27.6%, 유통체계의 확보가 17.9%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는 기술수준 향상 및 경험의 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며, 유기농산물의 판로가 보장되고 적정가격 수준이 유지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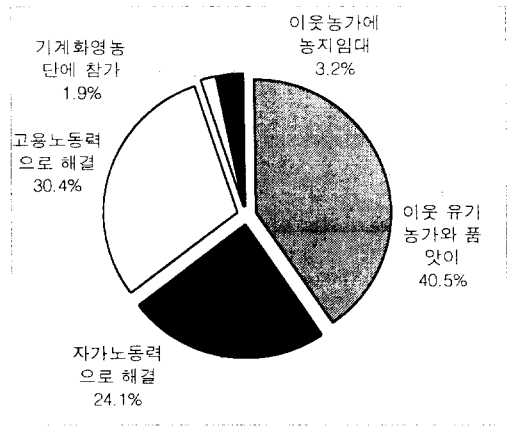
다면 이러한 점은 감수하겠다는 것이 생산자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일정수준 높은 가격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는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된 농가의 경우이며, 판로가 확보되지 못한 유기농가의 경우는 오히려 일반 농산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소품목, 소량생산되고 계절생산됨으로 인해 연중 다양한 유기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도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8〉 유기농업분야의 문제점



〈그림 9〉 노동력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둘째, 노동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노동력부족은 과거부터 유기농업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기농법은 일반농법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들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퇴비 제조 및 생산, 제조작업, 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작업시 특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업과 관련된 기계와 농자재, 관련 생산시설 등의 미발달과 관련 유기농업기술 등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림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공동퇴비장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경우는 약 10.1%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자가생산하는 경우가 약 61.4%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대량생산시설을 갖춘 퇴비공장의 설립이나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장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동력 절감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비살포작업시에도 노동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기계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병충해가 발생한 후에는 농약을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거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퇴치하여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이에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서는 사전에 병충해를 예방하는 작업과 제초작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도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 주요 방법이 발효퇴비, 각종 효소제 등 유기물을 적기, 적량을 투입하여 지력의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농작물을 튼튼하게 생육되도록 하여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병충해 방지와 제초작업에 드는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병충해와 이상기후에 강한 품종의 개발, 생물농약이나 자연농약의 개발, 제초기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채소류나 과일류 등의 경우 수확기에 거의 매일 소비지로 출하해야함으로 수확 및 수송 등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은 유통이 대부분 직거래형태를 띄고 있어 도매시장이 가지는 저장기능이 발휘될 수 없고, 1회수송 단위가 작고 수송을 대체로 생산자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노동력의 부족을 이웃 농가와 품앗이로 해결하는 경우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노동력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자가노동력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각각 30.4%, 24.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유기농산물의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일반농법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든다. 유기농업은 값이 싼 비료나 농약 대신에 비싼 유기물과 노동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퇴비제조비용이나 유기질비료 구입비 등이 화학비료 사용시의 비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확 및 수송시 수확량이 소량이거나 수송단위가 적고 생산자가 직접운송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비 또한 일반농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농업기술은 노동절약형, 자본집약적 기술이다. 환경보호 등을 위해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퇴비제조비용, 값싼 유기질비료의 개발, 유기농법에 알맞는 농기계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초기 일정기간 동안에는 수확량이 감소된다. 소농경영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약 3년 이상의 수확감소는 농가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 현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확산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풍토에 맞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개발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도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기농업에 적합한 품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유기농업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기술은 천차만별이다. 지역마다 생산기술이 다르고 농민 각자의 경험에 기초한 기술과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 등이 혼재되어 있고 유기농업기술을 정립한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유기농업기술을 정립·보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유기농업단체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기술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여섯째, 현재 유기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농민들 사이에 기술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단순히 농약을 덜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유기농산물을 자처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기농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기준과 내용절차에 모호한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의 생산방식, 생산요소, 검사 및 보증에 관한 각종 품질인증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가격차별화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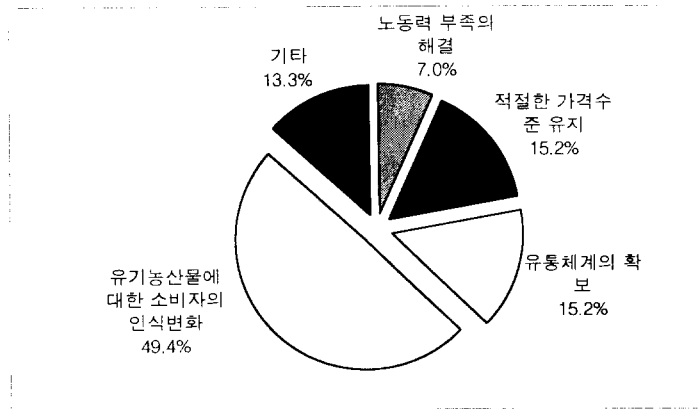
한편, 유기농산물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 생산자를 못믿는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 거부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유기농업 경영을 위한 향후과제 및 유기농업의 지속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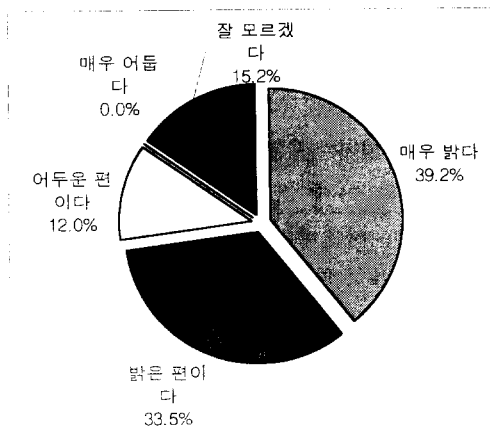
성공적인 유기농업경영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49.2%, 유통체계의 확보가 15.3%, 적절한 가격수준 유지가 15.3%, 노동력부족의 해결이 6.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산물 생산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판로가 확보되면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은 국민들의 경제규모와 생활수준, 환경관련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선호가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고 생산측면에서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써 농업소득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의 생산이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업의 향후전망에 대해서 매우 밝다가 39.0%, 밝은 편이다가 33.9%로 유기농업의 미래를 밝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유기농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계속하겠다는 78%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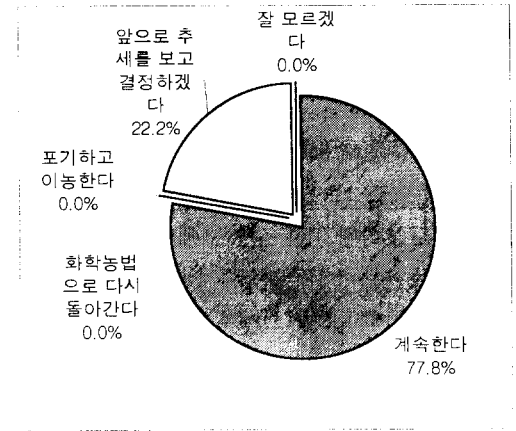
그러나 유기농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두운 편이다와 잘모르겠다는 비중도 적지 않은 점과 유기농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앞으로의 추세를 보고 결정한다가 22%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림 10〉 유기농업경영을 위한 향후 과제



〈그림 11〉 유기농업의 향후 전망



〈그림 12〉 유기농업의 지속여부

V. 맺는말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농산물에 비해 그 생산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퇴비제조 및 생산, 제조작업, 병충해 방제, 수확 등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일반 비료나 농약 대신에 비싼 유기질비료 등의 구입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기농업의 경우 생산량의 감소, 생산기술의 한계 및 미정립, 관련법 및 제도의 미흡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안정된 판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된 바와 같이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는 기술수준 향상 및 경험의 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의 판로가 보장되고 적정가격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러한 점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확대책이 필요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매시장의 경매과정에서 일반농산물과 구별된 차별화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기농산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농산물과 같이 시장기능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확대와 발전 등을 위해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수 있도록 다품목 주년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지역을 단지화하고 과학적인 가격결정방식이 설정되어야 하며, 소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의 경우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부터의 유기농산물품질인증은 소비촉진은 물론, 생산농가의 수익성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정되는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대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산물 표시사용신고를 한 농가수와 생산면적 비중은 각각 42.4%와 4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유기농산물 생산자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품질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판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유기농산물 표시사용신고제도의 홍보를 통해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소비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로 가져와 소비확대는 물론 유기농산물의 생산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기농업 도입후 일정기간 동안 생산량의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과 유기농산물생산에 드는 노력과 그 비용을 감안할 때 유기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공재영·서우석, 「환경친화형 농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0권 제4호, 한국농업교육학회, 1998. 12.

국립농산물검사소, 『특산물 품질인증 실시요령』, 1996. 5.

- 김종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 김종숙 외,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와 농가보급방안—저투입, 유기-자연농업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1996.
- 김 호, 「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표시제도의 발전과제」,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8.
- _____,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 『농업경제연구』 제36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995. 8.
- _____, 「유기농산물 생산자 조직의 유통활동과 소비확대 방안」,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5. 5.
- _____,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실태와 유통계열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12.
- 김 호 · 조완형, 「유기농산물 생산의 특성과 경영소득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5. 5.
- 김 호 · 조완형 · 박영범,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례연구」, 『대산논총』, 제3집, 1995.
- 김 호 · 허승욱, 「유기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7. 12.
- 박준근 · 박홍섭,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5권 제2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7. 6.
- 박현태 · 강창용, 「지역농업조직의 유기농산물 생산 및 판매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5. 5.
- 박홍섭 외, 「환경농업에 의한 과수재배자의 경영분석을 위한 생산, 유통실태 조사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6. 12.
- 서종혁 · 김종숙 · 전장수,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와 장기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윤석원 외,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유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농림부, 1999. 11.
- 이덕로, 「환경농업 육성정책과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8.
- 장원석 · 김 호, 「유기농업의 산지 및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경영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5권 제2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7. 6.